

이집트 버스 폭탄테러... 한국인 3명 사망·15명 부상

충북 진천 교회 성지 순례객 31명 탑승 피해 정부 신속대응팀 파견... 특별 여행경보 발령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 타바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인 탑승 관광버스를 상대로 한 폭탄 테러가 발생, 우리 국민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했다. 정부는 현지에서 신속대응팀을 파견하는 한편,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테러를 당한 버스에는 충북 진천 중앙장로교회 소속 성지순례 관광객 31명과 가이드 2명 등 한국인 33명과 이집트인 2명(운전기사 1명·가이드 1명)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다.

한 직육 폭발음이 들렸다"고 증언했다. 당시 버스 뒤쪽에 있었던 문희정씨는 "괴한이 버스에 타려고 하자 가이드가 밀어냈으며, 그가 버스 밖으로 나간 직후 폭발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대 남성 괴한이 버스 안으로 폭탄을 투척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부에선 자폭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테러범의 신

원 등과 관련, "관련 정보는 우리도 요청하고 있고 이집트 당국도 조사 중이나 구체 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테러가 한국인을 겨냥했는지 등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번 테러 사건과 관련해 과격 이슬람주의자의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시나이반도 타바의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피해자 가족과 이집트 및 한국 정부에 애도를 표했다. AP통신 등은 이번 테러가 2004~2006년 이집트 시나이반도 남부 지역에서 120명이 희생된 후 처음 일어난 관광객 대상 테러라고 보도했다.



참혹한 테러 현장

지난 16일(현지시간)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 타바에서 폭탄 테러를 당한 관광버스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다.

한국인 사망자는 충북 진천 중앙장로교회 신도 김홍렬(64)씨와 현지 가이드 겸 블루스카이 여행업체 사장 제진수(56)씨, 한국에서 동행한 가이드 김진규(35)씨 등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인 운전사 1명은 현장에서 숨졌다. 한국인 부상자 중 7명은 사벨 엘세이크 국제병원에 있고, 8명은 누에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한국인 15명은 가벼운 부상자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귀국하기 위해 호텔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17일 밝혔다.

이번에 성지순례에 나선 중앙장로교회 신도는 남자 11명, 여자 20명 등 모두 31명이었으며 지난 10일 출발해 21일 귀국하는 일정으로 터키와 이집트,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순례할 계획이었다고 교회 측은 설명했다.

교회 측은 "한국시간 16일 밤 9시 20분경 이집트 국경에서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 출국수속 도중 폭탄 테러를 당했다"고 밝혔다.

사벨 엘세이크 국제병원에 입원중인 생존자들은 "괴한이 버스에 오르려다 저지당

신문협회,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반대

“특정 매체 편향 정책”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 허용 추진 방침과 관련, 매체 균형 발전을 위협하고 특정 매체 편향 정책이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최근 방송위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불필요한 시청률 경쟁을 촉발해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하락과 국민의 시청권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위는 지난달 23일 신문, 중소 지역 방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지상파방송의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 ▲방송광고 급

지 품목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광고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지상파방송의 광고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타 매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특정 매체를 위한 편향정책이며 특혜”라고 비판했다.

또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되면 “한정된 광고 자원을 놓고 시장에서 여러 매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신문, 중소 지역 방송 등 경영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매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거중립 위반 공무원 최대 징역 10년

공직 선거법 개정안

공소시효 10년으로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규정이 신설됐다.

이때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안정행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전국 24개 시·도·시·군·구 부단체장을 소집해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국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6·4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당부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만 규정됐을 뿐 처벌규정은 없었으나 개정안에 처음 들어갔다.

관련 공직선거법은 지난 13일 개정됐다. 이 처벌규정은 벌금 하한과 징역형 하한이 정해 선거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 규정이다.

현행 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무 담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은 경중을 불문하고 공무원직에서 퇴출된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확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줄을 섰던 단체장이 당선되더라도 공무원의 과거 잘못이 묻히지 않을뿐더러 10년간 언제든 들춰져 처벌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무원 조직 내부의 조직적인 선거법위반을 고발하는 공무원에게 최소 1억원 이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광주U대회 ‘D-500일’ 조직위 실전 체제 전환

선수촌 공정률 40%, 수영장·다목적체육관 21%

광주시와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이하 광주U대회 조직위)가 대회 개막 ‘D-500일’을 맞아 모든 시스템을 실전 체제로 전환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조직위에 따르면 오는 2015년 7월 3일~7월 14일까지 12일간 광주·전남에서 열리는 U대회가 5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최저 비용·고효율을 원칙으로 선수촌과 경기장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한편 경기 운영 체계 등을 실전처럼 점검·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3726세대 규모로 지상 15~33층 35개동을 건립중인 U대회 선수촌은 현재 22층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등 40%의 빠른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170여개국 1만4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머물게 될 선수촌은 세계 스포츠 대회 사상 최초로 재건축 방식을 채택했으며, 100% 분양에 성공해 선수촌 이후 활용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이는 세계적인 국제 대회를 유치할 경우 선수촌 건립 비용으로 평균 7000억원대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예산 절감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경기시설 68곳 중 64곳은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기로 했으며 현재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7월 착공할 예정이다.

새로 건설하는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양궁장, 국제 테니스장은 내년 3월 말 준공 목표로 건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메인 경기장으로 쓰일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은 각각 지난해 4, 5월 착공해 21%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U대회를 전후방에서 지원하게 될 자원봉사자도 12만명을 모집해 지역 내 대학과 시·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방문교육을 하는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3년 열린 카잔 U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별 국제 대회의 운영 시스템을 입수해 분야별 현장운영계획과 운영 요원 행동매뉴얼 보안 등 완벽한 대회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회 개막 D-500일을 기점으로 대회 당일과 같은 실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 대회 흥행을 위해 남북 단일팀 구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남·북 등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조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7일 오전 열린 간부 회의에서 U대회와 관련해 “전남·북지역 자치단체들과 함께 일일 점검체계를 갖추고, 분야별, 종목별로 세밀하게 준비해 500일 앞으로 다가온 U대회를 가장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대회로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기초의원 순천 9곳 24명·완도 3곳 9명

도의회, 선거구 획정안 의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시와 완도군 기초(시·군)의원 선거구가 확정됐다. 17일 전남도의회는 전남도가 제출한 기초의원선거구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순천은 9개 선거구에서 지역의원 21명과 비례 3명 등 모두 24명을 뽑게 된다.

선거구는 ▲가선거구 도사동, 상사면, 남제동 ▲나선거구 별량면, 낙안면, 외서면, 송광면 ▲다선거구 자전동, 장천동, 풍덕동 ▲라선거구 해룡면 ▲마선거구 왕조2동 ▲바선거구 덕연동, 조곡동 ▲사선거구 왕조1동, 서면 ▲아선거구 승주읍, 주안면, 황전면, 월등면 ▲자선거구 삼산동, 중앙동, 향

동, 매곡동이 포함됐다.

또 완도군은 3개 선거구에서 지역 8명, 비례 1명 등 총 9명을 뽑으며 ▲가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나선거구 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 ▲다선거구 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으로 확정됐다.

한편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의회 5개 선거구가 조정된 광주시의 경우 기초의원 수(68명)의 변동이 없고,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15평(실 9평) 1세대	29평(실 18평) 3세대
- 15층, 무등산 쪽, 주거겸 사무실	- 10/12/13층, 하천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감정가 4,500만원	- 시세/분양가 1억원
- 급매가 3,500만원	- 급매가 6,500만원

38평(실 22평) 1세대	53평(실 33평) 1세대
- 2층, 하천 쪽, 사무실 전용	- 13층, 양동/하천쪽 코너, 전망좋은
-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 사무실 전용, 을수리
- 급매가 1억원	- 시세/분양가 2억원
	- 급매가 1억 5000만원

77평(실 44평) 1세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20층,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전용, 을수리	문의 010-4667-9300
- 시세/분양가 3억원	- 관리비 평당 7,000원, 대형주차장 완비
- 급매가 2억 5000만원	- 개별 냉/난방 시설

경매 투자

-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교육비,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사정상 “매매”

순천지방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 148P, 건물 480P, 5층 신축건물
- ▶ 감정가/시세-23억원
- ▶ 임 대- 보증금 3억원에 월1,400만원 예상(임대중) 2층 커피숍 임대 완료
- ▶ 대 출- 14억원(이자 월550만원)
- ▶ 매매가- 22억원(조정가능)
- ▶ 수 입- 5억원 투자에 월850만원

주인직매 H. 010-4667-9300